

Critics

조은지 – Green Underground

그린, 그 참을 수 없는 무거움

미술세계 2009 5월호 리뷰

S.I.S.O A

독립큐레이터 / 김지혜

2009년 3월 24일 ~ 4월 17일 @테이크아웃드로잉

나폴레옹은 사랑 때문에 죽었고, 반 고흐는 귀를 잘랐다. 그 둘에게 그러한 사건을 허용한 주체는 동일한데, 바로 '녹색 Green'이다. 나폴레옹은 슈바인푸르트의 녹색을 광적으로 선호했던 탓에 그 안에 녹아있던 비소에 중독되어 죽었으며, 반 고흐는 광기의 술이라 불리는 초록색 압상트의 치명적 유혹에 빠져 귀를 잘랐다. 한 마디로 그들은 '녹색 중독자'였다. 하지만 지난 40년을 돌이켜 볼 때, 과연 우리는 녹색의 중독으로부터 자유로웠다 말할 수 있을까?

조은지의 이번 전시는 이러한 우리의 '녹색강박증'에 대한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라는 문구에 발이라도 달린 듯 이 세상은 온통 녹색으로 가득 차 있다. 그 강한 생명력은 땅 밑 아니 지구의 맨틀에도 뻗쳐 있는 것만 같다. 한낱 어떠한 색채의 부류에 불과한 녹색이 이토록 특별한 에너지를 획득하게 된 데에는 많은 패러다임이 한몫을 하고 있다.

산업화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환경을 생가가게 되었고, 자연과 생태계를 지켜내자는 움직임이 생겨났다. 그리고 내건 상징이 바로 '녹색'이었다. 환경보호와 비폭력, 부의 재분배 등의 모토 하에 1979년에 창설된 '독일 녹색당'은 어느덧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어 합중국 건설을 주창하고 있으며, 녹색 기술과 청정 에너지로 신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녹색성장론'은 지구촌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또 녹색은 건강을 상징하며, 우리 눈에 가장 편안함을 주는 색으로도 알려져 있다. 고로 소주병이 초록색인 것도 자연과 건강을 생각한다는 의미를 내포한 마케팅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녹색은 국가적 전략을 은유적으로 표방하기도 하는데 '식량무기화'를 내건 '녹색혁명'이 그것이다.

이렇듯 40여 년 동안 집단적으로 녹색을 선호해온 지금, '녹색 중독'에 대한 자가진단이 필요하지는 않을까? 이는 작가 조은지가 작품으로 세상에 내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세상의 평화와 인류의 평등 그리고 만물의 보존을 위해 등장했던 많은 패러다임이 낡은 이념과 허름한 담론으로 덮여 마침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을 자주 목격해왔다. 따라서 그 누구도 함부로 의심하지

않는 청정영역인 'Green'을 반성과 성찰의 도마 위에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게 이번 전시를 통한 작가의 궁극적 의도인 것이다.

그의 작품에서 녹색은 벽에 뚫린 구멍에서 쿵쿵 쏟아져 바닥에 흥건히 고이거나 땅 밑에서 약한 불빛으로 솟구치는 모습, 묘하게 흐릿해진 각테일의 형태 등으로 구현되어 있다. 이는 자본의 논리로 구축된 회색 도시 저변에 깔린 '녹색'이라는 명분에 내포된 가식을 고발하는 것이기도 하고, 생명과 동시에 '죽음, 독, 뱀'등을 의미하는 녹색의 이중성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마치 사악한 녹색 압상트에 대한 두려움을 보여주는 것처럼. 따라서 조은지의 작품들은 하나같이 '녹색'과 그것을 표방한 패러다임에 대한 무조건적 관용, 그들의 참을 수 없는 무거움을 표출하고 있다. 붉은 피를 지닌 인간이기에 이처럼 녹색에 대한 근본적 두려움과 거부감을 품을 수 있는 건 아닐까.